

어명소 차관 ‘대구경북통합신공항, 국토부·지자체 원팀 협력’ 강조

- 26일 신공항 이전부지 찾아 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공동 노력 당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6일(금)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-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.
 - 어 차관은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주변 현황, 이주 및 보상대책,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여객·물류 중심 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·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지난달 제정된 특별법*에 따른 추진단 출범,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*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(4.25 공포)
- 이날 어 차관은 대구시, 경상북도 신공항 담당자들을 만나 “신속하고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·대구광역시·경상북도가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”면서,
 - “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며, 국토교통부도 2030년 군 공항 이전계획에 맞춰 민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 - 또한, 어 차관은 항공교통본부를 방문하여 “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하고, 대구 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현장 직원들도 격려했다.

2023. 5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